

영락교회 여전도회와 옥방교회

최명화(권사, 서울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서울 영락교회의 50-60세 여성도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제2여전도회가 경북 영주 옥방교회의 새누리공동체(대표 천청명 목사)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새누리공동체는 농촌 교회를 자립시키기 위하여 생산한 무농약(유기농업) 농산물을 도시인에게 유통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 동안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농촌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방법을 놓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하며 기도하던 중에 영주 옥방교회의 천청명 목사님께서 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며 농촌 교회의 자립을 위해 교인들과 함께 유기농법에 의한 무농약 채소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 목사님께서서는 1991년에 영주 지역에 새누리공동체를 설립하시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유통 부진으로 매우 힘들어하실 때였다.

영락교회 선교부와 여전도회에서는 옥방교회에 임원들을 보내어 사정을 확인한 결과 도시 교회가 후원하면 새누리공동체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고, 이러한 협동을 통하여 농촌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의 국내선교부는 새누리공동체의 농산물을 교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금요 장터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결실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영락교회의 배려와 제2여전도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1. 농산물의 종류

봄이면 들에서 냉이를 캐고 썩 등의 산나물을 뜯어 정성껏 포장하여 상품화하였고 톳나물, 산채 나물 등 모두가 인기 품목이다. 금요 장터에서는 계절에 따라 나오는 과일, 교인들이 정성껏 만든 잼, 메주, 고추장, 된장, 그리고 김장철의 각종 채료들과 시골에서 만들 수 있는 가공품 등과 쌀, 곡식, 밀반찬 등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경남 거창의 임불교회에서는 된장과 솔잎 효소를, 거제도의 다대교회에서는 돌미역과 다시마, 멸치를, 강원도 삼척의 임원중앙교회는 자연산 미역을, 전남 고흥의 가화교회는 무염산 김을 채취하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2. 농산물의 위탁 판매

금요일 아침 일찍 여러 교회와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들이 새누리공동체를 통하여 모이지고 그 농산물들이 우리 교회에 도착되면, 제2여전도회 회원들이 예배 시간 전과 예배가 끝난 후에 판매한다. 교회 마당 한구석에 천막을 치고 농산물을 팔자니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어렵고, 여름에는 장마 비에 옷과 신발이 엉망이 된 적도 있고, 여름 더위에 현기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봉사자들은 미자립교회를 돕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

금요 장터의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어려움과 시련도 컸

다. 밤새도록 실려 온 야채들은 시들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두부가 차 안의 고온 때문에 상하고, 올라오던 트럭이 고장나 제 때에 장을 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가 온통 장터가 되었다고 푸념했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판매 액수도 적었다. 정말로 무농약 농산물이냐고 되묻는 일은 허다했으며 비싸다고 발길을 돌리는 교우들도 많았다.

3. 매출 현황

장터 초기에는 곡식들만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 액수도 적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품목도 다양해지고, 판매하는 방법도 개선되어 판매액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봄철에는 메주를 팔고 김장철에 고추, 마늘, 김장배추 등을 판매할 때는 하루 매상이 1천만 원을 넘길 때도 있다.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에는 장이 열리지 않으며, 그밖에 교회 행사가 없는 금요일에는 꼭 장이 열린다. 요즘은 1년 판매액이 1억 5천만 원을 웃돈다. 이제는 장터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매출액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4.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돕나

옥방교회 공동체 회원들은 수입금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십일조를 소속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교회 자립의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공동체는 인건비와 유통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으로 선교 활동비를 쓸 수 있다. 매출액이 평균 1억5천만 원 정도라면 우리 교회는 매년 십일조로 받은 1천500만원을 고정적으로 농촌 선교비로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창 1: 31) 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은 점차 황폐화되고 있다. 세상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이제는 먹거리조차 마음놓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2년에 한번씩 농산물 생산 현장을 찾아가서 유기농법에 의한 시골 텃밭의 무농약 재배 야채를 세제 없이 씻어 먹어 본다. 우렁이 논에는 메뚜기가 많은데 비하여 농약을 뿌린 논에는 알곡이 큰 것을 보면서 알곡이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장터를 기다리게 되었다.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깊어간다.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무농약의 농산물을 시장보다 싼 값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바라기는 도시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선교 방법으로 미자립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농촌 선교는 물론이요, 직거래로 질 좋은 농산물을 도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농민들은 판로가 생겨 농산물을 좋은 값에 유통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땅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각자로서 고난을 참고 목회하시는 옥방교회 목사님과 공동체 회원 농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 農